

첨부1

## 강신만 후보자 답변서 (공약 관련)

\* 형식 및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 교육은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 경쟁교육과 행복 교육 - 단순한 문제는 아님
- 우선 초등, 중학, 고등학교의 문제가 다름
  
- 초등의 경우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성적표도 등수도 나가지 않음
-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지나친 경쟁교육”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학교에서는 특히 학업 부진 학생에게 있고,
- 학교 이후에는 학원 1, 학원 2, 학원 3을 전전하는 생활에 있음
  
- 초등학교에서의 행복 교육의 시작은 한편으로는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할 능력을 길러 주어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학교 이후 질 높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서 학교 내에서 특기, 재능, 적성, 흥미와 관련된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함께 뛰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강신만의 초등 행복 교육 대책은 온종일 초등학교임
  
- 고등학교의 경우 치열하고 절박한 대입으로 인한 경쟁 - 스트레스와 불안의 핵심 요인
  
- 우선 우리나라 인문계(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 일반계뿐 아니라 특목고, 자율고도 여기 포함)와 직업계(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진학 비중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
  
- OECD 평균 직업계고 진학률은 42%
- 한국은 20% 수준
- 고등학생의 80%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에 서서 경쟁하는 구조임
  
- 두 번째 문제는 대학 진학이 지니는 절박성에 있음
- 우리나라는 대학, 특히 이름있는 대학에 진학하냐 못하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짐
- 이로 인해 대입 경쟁의 절박성이 높아짐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대책일 것임
- 이는 교육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사회에 호소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악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학교는 공교육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는 기본임
- 공교육이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는 출발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는 것임
-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
-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보충학습 전담 강사를 배치
-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초학력 보충 수업 교실을 개설하겠음

\* 참고

AI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 좋게 말하면 낭만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무책임한 주장임
- 모든 학년, 모든 교과에 대해, 모든 수준의 “강의”를 해주고, 문제를 내주고, 피드백해주는 AI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언제 그런 AI가 가능할지는 AI 전문가들도 모름
- 설령 그런 AI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AI 앞에 혼자 앉아서 AI가 지도해주는 대로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라면 이런 학생은 “학업 부진 학생이 아님”
- AI 지원 시스템은 교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타당함
- “학업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가 학생과 대면하면서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한 “보충학습”이 필수적임
- 모든 교사가 모든 보충 수업을 할 수는 없음
- 교육청이 할 일은 교사들에게 “책임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그것은 교사의 손발과 분신이 되어줄 보충학습 강사들을 지원하는 것
- 학교마다 보충학습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것

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교사 전문성의 핵심은 수업, 상담, 생활지도에 있음  
교사가 이에 대해 얼마나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근평은 당연히 그러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장치가 아님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문제가 있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함  
교원 상호 간의 평가는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반목"을 반영하거나 만들어냄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해 평가할 근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교원의 전문적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학생과의 관계에서임  
따라서 그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학생으로부터 와야 함  
학생에 의한 교원의 수업과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임

평가의 활용 방식도 대단히 중요함  
학생에 의한 만족도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서는 안 됨  
단위 학교 교장이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해당 교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학생들로 받는 평가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  
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 상담, 생활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4.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학 포기 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중3의 기준 수학 기초미달 비율은

2019년은 11.8%에 달함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도 가중되어 13.4%까지 높아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수학 포기자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름

그러나

기초미달 학생만 문제가 아님

기초미달은 100점 기준으로 성취 수준 20점 미만 학생들임

그러나 사실 50점 미만 학생들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학력 충족자) 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상태임

기본 대책은 2번 항목의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했고

그 노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어야 함

수학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음

현재의 수학교육과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력 수학"이니 "사고력 수학"이니 "스토리텔링 수학"이나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녹포자의 학년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수학교육과정 전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그동안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저도 더 공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5. 공교육 내의 한글 수업시수가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타 교과 활동은 여전히 한글 습득을 전제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이 불안 속에 선행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문해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한글과 문해력에 대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문맹률은 1%에 가깝지만, 읽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은 75%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EBS가 방송한 “미래 교육 플러스”>

근본적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학교에서 읽고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 논리적으로 글쓰기 교육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교과 간의 한글 수준의 엇박자는 그다음 문제임

예를 들면, 수학 교과서나 문제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 수준이 같은 학년의 국어 시간에는 아직 배우지도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따라서 교과 간의 한글 수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실질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충학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6.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관련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놀권리와 휴식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등 기관내에서의 놀권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아동교육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 등 기관 내에서의 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정규 시간”에 “노는 시간을 확대하자”라는 논리로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정규교육과정 자체가 “지적 학습”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그 자체에 “다양한 체험과 활동, 체육활동과 놀이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의 과잉교육과 놀 권리문제는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 1, 학원 2, 학원 3... 을 전전하는 생활에 있음

아동 교육체제의 질을 높이는 강신만의 대책은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를 만드는 것임

오후 3시까지의 정규교육  
오후 3시 이후 저녁 7시까지의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교실의 내용은 체육, 음악, 미술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특기, 재능, 취미 프로그램뿐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시간  
그냥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서 관리되어야 함

중요한 것은 방과 후 교실의 모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고  
노는 시간도 잘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학교의 많은 친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임

강신만은 이를 위해 서울 교육청이 출자한 전문적인 방과 후 사업단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음

7.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방과 후 프로그램이 특히 고등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참여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핵심적인 이유는

특히 공립 초등의 경우 최저가 입찰로 인해 양질의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일부의 인기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 출자 방과 후 사업단을 통해서 양질의 강사와 프로그램 제공할 것임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 부담금과 교육청 지원금 높여서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내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답

현재 공립 초등의 경우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3만 원 선이 대부분

평균 5만원 선의 학부모 부담 + 교육청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8.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우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적차별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의 7번 문항에 대한 대답 참고 바람

9. 같은 고등학교입에도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까지도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민사고의 경우 서울의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1인당 교육비가 약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통계를 본 적 있음

30배는 몰라도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비 수준에서도 이미 특권학교인 것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특권학교"를 상위로 하는 서열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그러나 교육법 시행령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려던 노력은 윤 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 수준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지정취소로 접근했던 것은 대부분 법원에서 패소

현재 상황에서 특권적 학교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접근이 난감한 상태

일단 특권학교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특권적 학교에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방안 자체도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함

그중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봄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낸다면 각각의 학생들이 모두 나름대로 특별함을 얻는 것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져올 현실적 문제에 관한 대안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10. 배움의 내용과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 집중한 상대평가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평가의 목적을 회복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으로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특히 내신성적의 상대 평가와 절대평가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어왔음

사실 이 문제의 근저에 깔린 것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평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문제임

내신 평가를 하는 목적이  
학생 개개인의 성취와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일환”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과 비교하기 위한 자료”나가 분명해져야 함

전자의 경우라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비교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특히 대학입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짐

당장, 학교마다 교사마다 천차만별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적 부풀리기도 재연될 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

따라서 “절대평가”는 막연한 당위로만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봄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교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봄

<내 고민은 그렇다고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음>

11. 사교육은 이미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해로운 과도한 선행, 심야, 고액 교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사교육비 절감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왔지만, 통계적으로 실패했음. 진보 교육진영에서는 더욱 열심히 사교육 절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교육비는 지속해서 증가했음

이는 사교육비 해결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에서 사교육비는 교육을 통한 지위획득 경쟁이 치열함과 절박성에서 발생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욕망, 불안, 의무감"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교육, 특히 명문대를 둘러싼 입학 경쟁의 치열성과 절박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교육비 해결은 사실상 어려움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함

강신만은

우선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온종일 초등학교가 그것임

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안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대부분 친구가 함께 공부하고, 참여하고, 노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사교육 사업은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현금화시키는 사업임

서울 초등학생들은 평균 6시 50분에 귀가함

아이들이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사교육에 접하는 시간도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됨

<저녁 7시 이후에 초등학생을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은 막을 방법이 없음>

첨부2

## 조희연 후보자 답변서 (공약 관련)

\* 형식 및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교육은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1) 경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서열체제 해소에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본질적인 서열체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국제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중은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2025년 시행이 확정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새 정부에서 다시 뒤집힐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폐기한다면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지난 8년간 노력해왔던 것처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다시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체제 개혁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초·중·고 교육혁신이 실현되려면 **대학서열화 체제의 완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2017년, 2021년, 두 차례나 사회적으로 대학체제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 학교 내 성적 경쟁을 완화하겠습니다.

외부적 서열체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 과도한 경쟁도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을 보았을 때 보통 초등을 지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되어 점점 가중됩니다. 중학교 2,3학년은 이미 절대평가제인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었는데도 줄 세우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졸업 시 적용되는 석차백분율 제도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석차백분율을 폐지하겠다고 2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3기에 간다면 **중학교 석차백분율 폐지를 완성**하여 중학교 성취평가제를 온전히 작동시키겠습니다.

3) 행복교육을 위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수업과 평가 혁신을 하겠습니다.

경쟁이 약해졌다고 행복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이고, 나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교육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을 구현**하고,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글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름의 가치를 배우고,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독서토론 및 사회현안 토론과 같은 토론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4) 고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탐구하며, 타인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학교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2.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 코로나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앤데믹 이후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고 기본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정책은 물론 학습중간층을 복원하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를 실시해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 '서울ABC'와 같이 각 과목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소수학생 멘토링 제도인 '키다리샘'**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2) 2기 동안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이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1단계는 교실에서, 2단계는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3단계는 학교 밖 '서울 학습도움센터'**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통합 지원합니다. 1단계는 (담임)교사가 기초학력 진단-보정-관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만의 지도로 어려운 경우는 2단계로 넘어가 학교단위에서 대상 학생을 개별 맞춤 지원합니다. 이때는 학교 내 다양한 단위가 결합하여 팀을 운영합니다. 3단계는 학교 단위에서도 대응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합니다. 특히 서울학습도움센터 또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연계되는데 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3)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온 신입생인 **중1 학생의 기초학력을 점검하고 보장**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 특히 학습결손 보완은 추가적인 시간이 아닌 바로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은 낙인 효과로 참여가 어렵거나 지속이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업 때 내용을 쫓아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초1, 초2 와 중1 주요교과 수업을 1,615 명의 협력강사가 지원하였는데, 3기에는 **협력강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느린 학습자'가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지능검사 결과 IQ 71~84에 해당되며 IQ 85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습자를 가리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배경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난독, 경계선지능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이를 필요만큼 확대하여 대응하겠습니다.

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1) 교사 교육과정 편성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문성을 함께 나누며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교사 교육과정 편성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 틀에서 제한되지 않고 교사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짜고, 교육과정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안,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은 평가와 외적 강제보다는 주변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이를 통해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전문성 제고에 있어 교원학습공동체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교원 성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도 급격합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다양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원의 **연차, 생애주기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연수 체계를 세워 시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교원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업무로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공통적인 행정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 현행 교원평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그 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평가자의 낮은 참여율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 게다가 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기재** 등으로 그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평가문항 개발과 신뢰성을 높이는 평가 참여와 방식 등 전면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는 않지만, 관련 논의에서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학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1) 수학 평가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교과 개선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은 평가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답 고르기 방식으로는 수학과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다양한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에 필요하지만, 특히 수학에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논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평가 방식이 교사 간 공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학교급 전환기 수학 복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급이 바뀌는 전환기에는 학생들의 수학 포기현상이 늘어납니다. 학교 급이 바뀌면서 수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전 초6 시기 때 초등수학을, 또 고등학교 입학 전 중3 시기에는 중학교 수학을 **복습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연계형 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3) 수학 대안교과서 활용을 지원합니다.

수학공부에 있어 개념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짧은 개념공부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교사에게 수학대안교과서 활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열겠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대안교과서를 적절하게 병행하고 활용함으로써 학생이 수학 개념을 직접 발견하고,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4)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수학체험관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본질적 교육과정 개선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수학역량이 강화된다면, 다양한 체험활동도 수학에 흥미를 더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존 수학체험관 외에 **다양한 공간에 수학체험관을 확대·운영**하여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에서 수학 흥미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공교육 내의 한글 수업시수가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타 교과 활동은 여전히 한글 습득을 전제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이 불안 속에 선행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문해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한글과 문해력에 대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 한글교육 홍보를 보완하여 학부모 걱정을 덜겠습니다.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한글 교육이 강화되어 이제 '한글을 떼고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예전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한글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학부모님은 여전히 불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글교육의 강화된 부분을 적극 알려서 학부모 불안으로 인한 입학 전 한글 사교육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타교과는 국가교육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타교과에서 한글 습득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한글 습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점은 **학교 현장이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 문해력을 향상하고 읽기 습관을 형성하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희망 학급 또는 팀별로 스스로 독서활동 전반을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독서 후에는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성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학급 또는 팀별로 소통하고 나누며 공유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관련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놀권리와 휴식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등 기관 내에서의 놀권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아동교육 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1) 유치원 교육과정을 늘면서 배우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놀권리와 휴식권은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놀이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유아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주도적 놀이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선행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의 놀권리와 휴식권이 침해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선행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내에서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최대한 없애서**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 요인으로 인해 과도한 선행학습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수학평가의 개선, 고입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 제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학원의 심야 불법교습은 막겠습니다.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 학습에 시달리지 않도록 **밤 10시 규정대로 학원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밀집지역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7.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1) 강사비 등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과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2)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는 교과맞춤형, 학습·사회성 회복을 지원,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3)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활동만으로는 다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는 그 다양성과 의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마을에는 학교가 갖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모델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격차 회복을 위한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마을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3기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 방과후 활동을 풍부히 하겠습니다.

8.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우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적 차별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 학교급 별로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강조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 활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소질과 특성의 아이들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초중고 별로 예체능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생이 '악기하나, 운동하나'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뮤지컬을 협력하여 완성하는 중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 자치동아리를 확대하겠습니다.

2)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따른 정치적 참여 및 권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을 제도화하고, 학생 자치활동 배움터, '다가치 학교'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민주주의식의 함양은 성적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학생 스스로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함이 살아있는 곳에서 획일적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3) 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이 심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심적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상담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적에 의한 차별도 그 주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학생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적으로 흔들린 자존감을 세우고, 그 바탕에서 필요하다면 맞춤형 학습과 진학 상담까지 제공하여 학생이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학생의 삶을 인정하고 배움을 일치시키는 학교인 '오디세이 학교'를 더 확대할 것이며, 오디세이 학교를 6년 과정으로 편성하는 서울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9. 같은 고등학교임에도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1)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 내 자사고는 18개교, 외고를 포함하는 특수목적고도 21개교에 달합니다. 반면 일반고는 200개교입니다. 40개에 달하는 특권학교는 일반고의 1/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학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와같은 자사고와 특목고는 학생 선발에 있어 일반고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2)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최대로 확대합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는 모두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고교학점제가 발표되기 전, 이미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대해왔습니다. 학교 자



체에서, 인근 학교가 모인 공유캠퍼스로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유함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정의로운 차등'을 구현합니다.

어려운 이에게 지원을 더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취임 후 한결같이 '정의로운 차등'을 구현해왔습니다. 학교 간, 그리고 학교 내 학생 간에도 차원을 달리한 정의로운 차등이 있습니다. **학교 간 차이를 줄이는 '정의로운 차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취약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주변 지역상황이 어떤 지를 살펴 낙인효과 없이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배움의 내용과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 집중한 상대평가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평가의 목적을 회복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으로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중학교 석차백분률 제도 폐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무력화하는 석차백분률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하여 전국에서 성취평가제 폐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과정중심평가, 또 특히 그중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교육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정답고르기 상대평가는 학생의 줄을 세우는데 급급합니다. 1등도 학업 성취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목적에 맞게 **학생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 특히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3) 학부모, 학생이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 과목별 성취도가 나와도 교과에 대한 학생의 상태를 알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목별 성취를 넘어 **학생 과목별 역량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기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교사 서술을 늘리는 것은 교사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1. 사교육은 이미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해로운 과도한 선행, 심야, 고액 교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1) 공교육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근절하겠습니다.

과도한 선행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초중고 교육을 관할하면서 공교육 안에서 **선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학교 평가가 선행을 유발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나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없는 소위 **'킬러문항'이 있는지도** 살펴하겠습니다. 또한 고입과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도 체크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심야 교습에 대해서는 **밤 10시 관련 규정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원 밀집지역은 더 강화하

여 점검하겠습니다.

3) 고액 교습에 대해서는 **수강료 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책정은 조율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과외를 가능한만큼 최대한으로 점검하여 불법 고액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4) 예체능 사교육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급별 예체능 교육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예체능 중점학교 확대**로 예체능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